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261>

JCCT 2023-3-32

##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Sociality and Happiness

공혜영\*, 김진숙\*\*

Hye-Young Gong\*, Jin-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노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노년층 295명을 대상으로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의 사회성은 가족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층의 사회성에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자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친구와 집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층의 정적 행복감은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자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집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 행복감은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자녀와 SNS 활동과 문자량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성을 높이고 행복감의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노년층,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회성, 행복감

**Abstract** Colaizziphenomenologi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various communication activities performed by the elderly in their daily lives on sociality and happiness. To this en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for 295 elderly people living in Ulsan Metropolitan City. Depending on the research proble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ociality of the elderl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in family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ity of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children of family communication and friends and group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communication activiti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happiness of the elderly had an influence on the children of family communication and the group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the negative happiness had an influence on the children of family communication, SNS activities, and text messages.

**Key words** : Elderly, Communication activities, sociality, Happiness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Received: January 31, 2023 / Revised: March 1, 2023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부 교수(교신저자)

Accepted: March 10, 2023

접수일: 2023년 1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3월 1일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계재확정일: 2023년 3월 10일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any

\*이 논문은 2022학년도 공혜영의 석사학위 취득 논문 데이터 일University

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함

## I. 서 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반적인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초래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1990년 5.1%에서 2000년에 7.2%로 높아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20%, 2051년 40%로 코호트(65세)의 규모와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7년에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13.0%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1). 한국사회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과 노인 인구 증가 문제가 맞물려 급속한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1].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라 노년층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노년기의 삶이 개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노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칫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외부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3].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다. 가족, 친구, 집단 활동 등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노년기의 우울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노인들도 e메일, 채팅, SNS 등을 통한 활동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3].

노인들은 노화와 함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소외감, 고독감 등은 노년기의 사회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4]. 사회성은 타인과 더불어 공동 생활을 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5].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

공하여 사회적 접촉과 사귀는 기회를 얻게 하며 상호작용의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구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느끼는 좋은 감정은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노인들의 행복감은 개인의 객관적 삶에 대한 적극적인 것으로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6]. 노년기에 행복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노인들은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7]. 노인들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우울감을 극복하고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처럼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고 노년층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변인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일상생활 중 근본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노년층이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고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노년층의 사회성과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노년층의 사회성과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회성, 행복감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층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사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을 만 65세로 기준하고 있으나, 노인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자마다 또는 지역과 문화마다 노인개념이 상이하하다[8]. 한국사회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9]. 노인에 해당하는 연령은 각 법률에서 당해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생업지원, 건강진단,

등의 실행에서 65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노인의 특성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노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년층으로 정의하였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어원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의 공통되는 (common), 공유하다 (share)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다[11]. 노인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족, 대인관계, SNS활용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층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들 수 있다. 가족, 친구, 집단 활동 등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된다 [11].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간에 관심이나 호감이 비슷할 때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와는 다른 성격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며 서로의 내면적 감정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다[12].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노인들도 e메일, 채팅 SNS 등을 통한 활동을 통해 서로 시 공간을 제약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3]. 자신의 삶을 보다 유쾌하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단절된 소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노년층들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노년층의 사회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2.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사회성 및 행복감의 관계

노년층의 사회성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결의 느낌을 증가시킨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인 그룹 활동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면 의미 있는 인맥과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걸쳐 다른 사람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하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자아를 완성해가며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 나가는 사회와 과정을 거친다 [13]. 노년기의 사회성은 노인의 가족,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허무함과 패배감을 견뎌내고 나아가 자기개발 또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삶의 안녕과 행복감을 지각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14].

노년층의 사회성을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노인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성이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활동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0]. 노인의 가치와 역할을 사회화를 통해 배움으로써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활동 가능하며, 건전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종종 발생하는 고립과 외로움은 우울증, 인지력 저하, 행복감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왔다. 따라서 노인의 행복증진에 있어 커뮤니케이션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행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삶의 상태이며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다. 그런데 행복감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시대, 문화, 학자에 따라 다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심리학자들은 행복감을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5]. 행복감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인정한 기준에 기초해서 주관적으로 '좋다'고 평가 판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16].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관적인 경험과 긍정적 감정을 행복감으로 보고 있으며 노년층의 행복과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거론되는 노인의 주관적 행복과 성공적 노화,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년층이 스스로 지각하는 긍정적 감정을 행복감으로 보고자 한다. 더불어 [17]이 개발하고 [18]이 번역하였으며, [19]와 [11]가 사용한 행복감을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행복감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은 노년층의 행복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20] 이는 정서적 행복의 필요성과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건강관리 행동은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21]. 따라서 노년층의 사회성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유지와 증진이 중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방법으로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설문지 배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활용하여 295부를 최종 분석 활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노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척도는 [22]에 의해 개발되어 한국노인의 정서에 맞게 [23]이 수정, 보완하고 [3]과 [11]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커뮤니케이션 활동 척도는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회성 척도는 [24]이 다차원적인 관여도 척도(IP Scale)를 개발하고, [25]이 수정한 설문지를 근간으로 [26]와 [27]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 척도는 [17]이 개발하고 [18]이 번역하였으며, [19]와 [11]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각 구성개

념 요인들의 측정 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노년층이 있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295부를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Science)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행복감, 사회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행복감, 사회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행복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회성, 행복감과의 관계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회성은 가족, 대인, 친구, 집단커뮤니케이션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행복감은 가족, 자녀, 대인, 친구, 집단커뮤니케이션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회성, 행복감과의 관계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ctivities, sociality, and happiness of the elderly (N=295)

구분	가족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사회성					행복감		
	부부	자녀	친구	집단	확장성	융집성	친밀성	신뢰성	유능성	건강성	정적	부적	
가족 커뮤니케이션	부부	1											
	자녀	-.05	1										
	친구	.02	.57**	1									
대인 커뮤니케이션	집단	.02	.44**	.61**	1								
	확장성	-.03	.44**	.48**	.51**	1							
사회성	융집성	-.03	.04	-.04	-.05	.04	1						
	친밀성	-.04	.22**	.30**	.39**	.53**	.25**	1					
	신뢰성	-.03	.46**	.48**	.45**	.72**	.07	.42**	1				
	유능성	-.15*	.37**	.40**	.39**	.56**	.03	.35**	.63**	1			
	건강성	.00	.46**	.41**	.34**	.53**	.10	.25**	.65**	.55**	1		
행복감	정적	-.08	.48**	.41**	.42**	.48**	-.01	.30**	.50**	.48**	.38**	1	
	부적	-.05	-.37**	-.24**	-.23**	-.27**	.33**	.12	-.30**	-.32**	-.30**	-.30**	1

\* $p < .05$ , \*\* $p < .01$ , \*\*\* $p < .001$

2.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자녀 커뮤니케이션( $\beta = .21, p < .001$ ),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집단 커뮤니케이션( $\beta = .29, p < .001$ )이 SNS의 통화량( $\beta = .23, p < .001$ )이 사회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볼 때,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설명량은 31%였으며( $F=13.63, p < .001$ ). 이는 노년층들의 자녀, 집단 커뮤니케이션, SNS의 통화량이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93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분산팽창계수)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문제는 없었다.

표 2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2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sociality. (N=295)

항목	(독립→종속)				공차	VIF	
	B	SD	$\beta$	t			
(상수)	50.22	5.5		9.09			
가족	부부	-.23	.25	-.05	-.95	.97	1.03
	자녀	1.14	.34	.21	3.34***	.73	1.37
대인	친구	.74	.39	.13	1.88	.57	1.77
	집단	.85	.19	.29	4.48***	.65	1.54
SNS	휴대폰	-3.33	3.47	-.05	-.96	.93	1.07
	통화량	2.47	.72	.23	3.44***	.62	1.62
	통화대상	-.08	.82	-.01	-1.0	.91	1.10
	문자량	-1.05	.63	-.12	-1.67	.52	1.92
	인터넷 사용시간	-.80	.60	-.09	-1.34	.68	1.47
R <sup>2</sup> =.34, 수정된 R <sup>2</sup> =.31 F=13.63***, Durbin-Watson=1.993							

\* $p < .05$ , \*\* $p < .01$ , \*\*\* $p < .001$

3.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행복감의 정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자녀 커뮤니케이션( $\beta = .27, p < .001$ ), 집단 커뮤니케이션( $\beta = .21, p < .05$ )이 정적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여 볼 때, 자녀 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들의 자녀 커뮤니케이션이 정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설명량은 31%였으며( $F=13.42, p < .001$ ), D-W(Durbin Watson) 값은 1.82로 0이나 4에 미치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분산팽창계수)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문제는 없었다.

표 3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3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happiness. (N=295)

항목	(독립→종속)				공차	VIF	
	B	SD	$\beta$	t			
(상수)	10.82	2.63		4.11***			
가족	부부	-.10	.12	-.05	-.84	.97	1.03
	자녀	.70	.16	.27	4.33***	.73	1.37
대인	친구	.29	.19	.11	1.58	.57	1.77
	집단	.29	.09	.21	3.21*	.65	1.54
SNS	휴대폰	2.15	1.65	.07	1.30	.93	1.07
	통화량	.82	.34	.16	2.39	.62	1.62
	통화대상	-.42	.39	-.06	-1.08	.91	1.10
	문자량	.54	.30	.13	1.80	.52	1.92
	인터넷 사용시간	-.21	.29	-.05	-.74	.68	1.47
R <sup>2</sup> =.34, 수정된 R <sup>2</sup> =.31 F=13.42***, Durbin-Watson=1.82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논의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행복감, 사회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행복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은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에서도 가족의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대인의 친구 및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년층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할수록 대인 관계가 넓어지고 사회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년층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이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

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할수록 정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부정적 행복감은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년층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사회성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노년층의 사회성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년층의 사회성과 행복감을 살펴봤는데,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사회문화를 갖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석하여 실시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지역 특성에 맞춘 노년층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Mikyung Kwon (2019). A study on quality of life in old age.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2] Sujin Shim (2018). Basic research on the beginning of life of the elderly. Daejeon: Statistics Development Institute.
- [3] Wi Gwan-pyeong (2016).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depression and health awareness-focused on the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4] Hyunjoo Choi (2003). A group music therapy approach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s of elderly monk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5] Seo Seung-duk (2002). Effects of adaptation activity program for personality education on self-esteem and social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wangju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6] Yunkyung Lee, Taeyu Jeon, and Nohyeon Park (2010). Effects of participation in living dance in the elderly on depression and emotional happiness. Korean Journal of Dance Science, 22, 1-19.
- [7] Hongsoon Kim (2010). A Study on Gratitude Control Model on Adolescent Happines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8] Kang Wol-seok, Kim Myeong-seok, and Ko Jae-wook (2013). The effect of smartphone information utilization and utilization performa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Gerontology, 33(1), 199-214.
- [9] Junghoon Lee (2018).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enior welfare centers. Seo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10] Cho Eun-yoo, Cho Kyu-pan, and Kim Jong-un (2019). Effects of a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happiness, sociability and self-efficacy of the elderly. Study on learner-centered subject education, 19(22), 423-442.
- [11] Sookhee Kwon (2019). Effects of communication activities in the elderly on self-expression and happines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2] Sooh Yang (2015). A study on how to improve empathic communication skill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3] Kyunghee Lee and Kyumi Lee (2012).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social skills of high school students, Counseling Studies, 13(3), 1537-1561.
- [14] Myunghee Le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ego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4), 1605-1620.
- [15] Jooyoung Kim (202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art therapy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and self-integrity in the elderly.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 [16] Jinsol Park (2017). The effect of structured musical instrument playing activity on the improvement of subjective happiness and reduction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aster's thesis.
- [17] Kozma, A., & Stones, M. J.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 Journal of Gerontology, 35(6), 906-912.

- [18]Hyekyung Jang (1998). Development of a well-being scale for the elderly in Korea.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19]Kyungho Ki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ype of the elderly and family health, helpless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20]Ok-Mi Baik (2018). Transition in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4). 301-308.
- [21]Jung-Ae Kim (2018). Effects of Recognition of thePregnancy necessity on Emotional Happiness -The mediation effect of health contro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3), 12-21.
- [22]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1), 37-49.
- [23]Ki Baek-seok (199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hortened ver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lderly Depression Scale. *Neuropsychiatry*, 35(2), 298-306.
- [24]Laurent, G., & Kapferer, J. N. (1985). Measuring consumer involvement profi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1), 41-53.
- [25]Dimanche, F., Havitz, M. E., & Howard, D. R. (1991). Testing the involvement profile (IP) scale in the context of selected recreational and touristic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1), 51-66.
- [26]Sanghong Song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reference and perspective.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27]Deokjin Bae (2009).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involvement of the elderly on physical ability, soci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